

로마법 기말고사 - 2014.6.23

- 고사시간은 100분(오후7:00-8:40)입니다.
- 자신이 소지한 자료(인터넷 자료 포함)에 한하여 자유로이 참조 가능합니다.
- 답안지에는 **학번만 기재**하고, 이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아래 두 문항을 모두 답하십시오.

[문1]

안토니우스는 크라수스로부터 금화10을 빌린 후 이 돈을 갚지 못하여 크라수스를 피해다니고 있다. 안토니우스는 검투사로 일하는 자기 노예 티티우스가 금화10을 크라수스에게 지급하면 티티우스를 해방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작성하였고, 이 내용을 티티우스에게 설명하였다.

티티우스는 검투사 흥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가 율리우스와 이 사안을 협의한 결과, 안토니우스가 크라수스로부터 빌린 금화10은 율리우스가 갚기로 하고, 티티우스가 해방되는 즉시로 율리우스와 동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안토니우스의 아들 가이우스는 안토니우스가 티티우스를 해방하는 내용의 유언을 작성한 것을 알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자신이 티티우스를 잘 사용하면 금화10 이상을 금방 벌 수 있고 크라수스에게 진 빚도 갚을 수 있으니 유언장을 새로 적도록 설득하였고, 안토니우스는 티티우스를 해방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한 후 사망했다.

새로운 유언장이 작성된 줄 모르는 티티우스는 안토니우스의 사망 소식을 접하자 율리우스에게 연락했고, 율리우스는 크라수스에게 안토니우스가 빌린 금화10을 지급한 후, 티티우스의 해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안토니우스의 상속인 가이우스는 새로운 유언장이 작성되었음을 알리고, 앞으로 티티우스의 흥행은 전적으로 가이우스가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율리우스가 크라수스나 가이우스로부터 금화10을 돌려받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래 귀적을 참조하고 아래 귀절과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설명하라.

주인이 유언으로 자기 노예가 나에게 10을 지급하면 그를 해방한다고 하였는데, 이 유언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모르는 그 노예가 나에게 10을 지급한 경우, 누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프로쿨루스가 답하기를, 그 노예가 특유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주인의 허락없이 지급한 경우라면, 그 금전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이므로 *condictio*가 아니라 물건적 소송[*vindicatio*]으로 그 반환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자가 그 노예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그 돈은 내것이 되므로 그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지급한 노예의 주인이 *condictio*를 제기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을 실제로 지급한 자가 직접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그럽고 간편하다. (D.12.6.53)

[문2]

A가 B(X가 소유하는 노예)를 살해할 의도로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 B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몇 걸음을 가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마차에 깔려서 사망하였다. 마차를 운전하던 C(Y가 소유하는 노예)는 B의 사망사고는 B가 마차가 다니는 길 한복판으로 예측불가능하게 넘어져서 생긴 것일 뿐,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와 C(그 주인 Y)가 X에게 부담하는 私法的 책임(이 있다면)을 설명하라.

끝.